

올해에도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



최기형 교감선생님

3년 전 었던 소년이었던 제자들이 제법 어엿한 청년의 모습으로 또 한 번의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입학과 졸업이 매년 반복되지만 언제부터인가 졸업식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학교생활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 만족스럽지 못한 입시 결과에 상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전에는 제자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다 잘 살아가겠지 막연하게 기대했는데, 요즘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잘 할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성에 맞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성적이 향상되고 대학진학을 잘 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선생님을 자주 찾아오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자주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졸업생 중에서 수학 수업이 끝나자마자 거의 매시간 선생님을 찾아온 학생이 있었는데, 수능에서 최상의 성적을 받았고 수시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또 선생님을 자주 찾아오면 비교과 영역에서도 다양한 지도를 받을 수 있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생님을 찾아와서 학술동아리활동 지도를 받거나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정보를 안내 받고 참가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쓸 거리가 많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자라며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흔히 '멘토'라고 합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이나 명망 있는 분들일수록 멘토를 잘 만나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야말로 학생들에게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명언 중에 〈논어〉에 나오는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로 직역되는 데,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은 좋아서 본받아 따르고, 나쁜 것은 비판하며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하므로 나쁜 것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사람됨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그 스승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설령 선생님의 가르침이 옳지 않다면 그것을 비판하며 올바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선생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대학진학이나 사회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하는 학생이 성공하는 것은 학력향상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면에서 주체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길러진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길들여지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해 왔기에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과외나 학원수업을 받지 않으면 불안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생활의 경험상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학생들은 거의 밤늦도록 휴일에도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말 그대로 '대학수학능력'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일맥상통하고 입학사정관들의 평가 관점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매 시간 선생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는 학생들로 교무실이 활기차고, 방과 후 자율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으리라 기대합니다.